

만성 신부전 환자의 위십이지장 내시경 소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수정 · 김나리 · 이관현 · 김진국 · 황승덕

배 경 : 요독증 환자에서 위장관 증상은 오심, 구토부터 상부 위장관 출혈까지 다양하며, 상부 위장관 출혈은 빈도와 사망율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위십이지장경은 요독증 환자의 위장관 증상에 대한 진단과,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지혈술을 포함한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어 유용하고 접근이 쉬운 검사법이다. 저자들은 위십이지장경을 시행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과 위십이지장경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2월 1일부터 2003년 11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위십이지장경을 시행한 만성 신부전 성인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임상 소견, 내시경 소견을 관찰하고, 상부 위장관 출혈의 빈도와 위험인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55.0 ± 13.5 세 (최소 16세에서 최대 81세까지), 남자는 88명, 여자는 67명이었다. 투석군의 평균 투석기간은 44.0 ± 49.6 개월이었고, 혈액투석은 76명, 복막투석은 18명이었다.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은 당뇨병이 60명 (38.7%), 만성 사구체신염이 23명 (14.8%), 고혈압성 신증이 16명 (10.3%), 다낭신이 4명 (2.6%), 기타가 13명 (8.4%)이고, 원인을 모르는 환자도 39명 (25.2%)이었다. 30명이 흡연자였고, 내시경 당시 44명이 항혈소판제를, 22명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23명이 H₂-차단제를 각각 복용하고 있었다. 위장관 증상은 오심과 구토가 53명 (34.2%), 심와부 동통이 42명 (27.1%), 토혈이나 혈변 41명 (26.5%), 무증상이 17명 (11%)에서 관찰되었다. 위십이지장경 소견은 위궤양 45명 (29.0%), 미란성 위염 35명 (22.6%), 만성 위염 26명 (16.6%), 십이지장궤양 18명 (11.6%), 출혈성 위염 18명 (11.6%), 혈관 이형성증은 7명 (4.5%)에서 관찰되었다. 소화성 궤양은 투석군 39명, 비투석군 22명에서 관찰되었고 두군의 차이는 없었다. 출혈은 투석군 37명 (23.8%), 비투석군 3명 (4.9%)으로, 투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p < 0.01$), 투석방법에 따르는 차이는 없었다. 투석군에서 출혈은 남자, 심한 위장관 증상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p < 0.05$, $p < 0.01$), 혈색소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비투석군에서 흡연자, 심한 위장관 증상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p < 0.01$, $p < 0.05$), 혈색소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결 론 :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투석치료에 따른 소화성 궤양 빈도의 차이는 없으나, 유지 투석치료 환자에서 남자, 심한 위장관 증상, 저혈색소 소견을 보이는 경우 출혈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위십이지장 내시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